

#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심장’ 나주 국가산단 시동

## 국토부, 산단 승인·고시 내년 하반기 착공 목표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2018년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2년 경제성 분석(B/C)에서 1.47을 확보하고, 2024년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2025년 4월 중앙심의 통과 등 수년간의 절차를 거쳐 승인·고시됐다. 이로써 나주 산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특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셈이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곧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 절차에 착수하며,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나선다. 사업은 전남개발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 전경. 전남도 제공

공사와 LH가 공동 시행하며, 총 36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개발 대상지는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 122만㎡(약 36만평) 규모로, 에너지 특화 산단으로 조성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나주시, LH,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수차례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시행구역 결정과 보상계획 수립 등 주요 현안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특히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 제도적·실무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데 밑거름을 제공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앞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확대, 신소재 및 나노융합소재 산업 육성, 친환경 IT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할 거점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전반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승인·고시는 전남도와 관계기관이 오랜 시간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 나주시, 뒀다방 피해 예방 총력 6월부터 경찰 수사 합동단속

전라남도 나주시가 방문판매 행위(뒀다방)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동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나주시는 지난달부터 나주경찰서와 함께 관내에서 성행 중인 방문판매(일명 뒀다방)에 대한 불법 행위 합동 단속과 수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가 상품 강매, 허위 광고 등 불법 상술이 반복됨에 따라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시는 경찰서,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주요 지점에 플래카드를 게재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불법 방문판매는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무료 증정이나 사은품 지급, ‘오늘만 할인’ 등의 상술로 판매하며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및 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으로 지나친 호의나 공짜 마케팅은 경계할 것,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 정보를 확인할 것, 구매 결정 전 반드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을 수령할 것,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 것, 구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포장을 개봉하지 말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뒀다방과 같은 불법 방문판매는 단순한 상술이 아닌 시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지난달 28~29일 화순군청소년문화의집이 '자두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청소년들이 자두를 수확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 자두농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달 28일~29일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두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2일 화순군 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통해 뽑은 지역 청소년 30명과 함께 진행된 이번 체험은 학기 중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두 재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됐다.

이들간 한천면 참새미 농장을 방문해 자두 수확 체험, 자두 포장 체험, 자두청 만들기 체험활동을 순서대로 진행했다.

임경우 가족정책실장은 “농업 현장 체

험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화순군청소년수련관,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오는 13일 접수... 5개 강좌 62명

전라남도 화순군은 오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동안 즐겁고 의미 있는 여가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나는 팀워크 활동이 펼쳐지는 ‘피구 리그’ △집중력 향상과 자세 교정에 도움을 주는 ‘요가’ △물리 법칙을 체험하고 창의력을 키



울 수 있는 ‘그레비트랙스’ △시원한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해변 케이크’ △광복절을 맞아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태극기 케이크’ 만들기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며 신청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https://hwasunyouth.kr/>) ‘프로그램 신청’ 게시판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최종 확정된 참가자에게는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소년수련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061-379-5167)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우 화순군 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여름,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청소년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의 일상에 의미 있는 경험을 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 설치 담양군, 주요 관광지 대상 여름철 감염병 예방 강화

전라남도 담양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관광지에 진드기 기피제 분사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분사기가 설치된 장소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3곳이며 가마골생태공원, 추월산 주차장, 병풍산 진입로, 쌍태리 약수터 등 총 13곳에도 설치돼 있다.

기피제 분사기는 손잡이를 눌러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에 뿌려 사용하며 1회 분사 시 2~3시간 동안 진드기 접근을 막는 효과가 있다.

보건소는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작동 여부와 약품 보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 시 긴팔과 긴바지를 착용하고, 귀가 후 두통,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나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 지역 여성기업인 간담회 개최 담양군, 창업·운영 활성화 논의

전라남도 담양군이 최근 담빛농업관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소속 여성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을 운영 중인 여성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물론 행정기관 발주 계약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내 여성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는 뜻을 담아 협회 회원들과 담양에서 여성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주)남경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오육자전남지회장은 “여성기업인들이 개인 역량을 활용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위촉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여성기업인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주체이자, 기부와 봉사 등 지역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관내 여성기업인 육성 및 경영활동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여성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선 8기 경제 분야 균형 방향인 ‘생동하는 활력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